

마트에서 절대 지나치면 안되는 식품표시



연 윤 열 의
푸드톡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대부분은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한다.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 습관이다. 그러나 식품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날짜 하나가 아니라 식품표시(Label) 전체다. 식품 포장지에 적힌 작은 글씨에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영양, 보관방법, 알레르기 정보, 원산지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현대적인 식품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량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제품을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었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장기한’을 의미한다. 즉 적절한 보관조건을 유지했을 때 제조업체가 품질을 보증하는 판매 가능 기간이다. 많은 소비자는 이를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이해해 왔지만, 실제 의미는 이

와 다르다.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직후 곧바로 부패하거나 위험해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직 안전한 식품까지 폐기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음식물 쓰레기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소비기한은 2023년 한 해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되었다. 낙농·유업계의 냉장 유통 환경 개선 및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일반우유(냉장 보관)는 2026년 현재 유통기한이 유지되고 있으며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도입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판매 기준이었던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멸균우유, 치즈, 통조림, 라면과 같이 미생물이 쉽게 증식하지 않는 식품은 실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다. 반면 김밥, 도시락, 생선회, 신선편의식품처럼 미생물 증식 위험이 높은 식품은 소비기한도 매우 짧다. 즉, 모든 식품이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특성과 제조공정, 포장방법, 저장조건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각각의 소비기한이 설정된다.

소비기한은 제조업체가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면 가장 먼저 실시하는 시험 가운데 하나가 소비기한 설정 시험(Shelf-life Test)이다. 제품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장기간 보관하면서 품질과 안전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한다.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식품 제조업체의 책임은 더욱 커졌다. 제품 하나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소비기한 설정 시험뿐 아니라 제조공정의 위생관리, 원료 품질관리, 포장 기술, 냉장·냉동 유통체계 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냉장식품은 생산공장에서 소비자 식탁에 이르기까지 콜드체인이 유지되어야 한다. 유통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소비기한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했을 때만 유효하다. 개봉 후에는 소비기한과 관계없이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제품을 스캔하면 제조일부터 유통온도, 품질 상태, 예상 잔여 소비기한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라벨 속의 작은 글씨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의 파수꾼임을 명심하자.

/기술사, 한국비건협회 공동대표

AI의 과실은 누가 따먹나



기지 수첩
구 남 영
(산업부)

잔칫집에서는 모두가 웃지만 계산서를 받아 든 사람의 표정은 다를 수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러온 반도체 호황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축포를 터뜨리는 반면, 소비자들은 점점 높아지는 전자제품 가격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SK하이닉스가 28일 발표한 3분기 실적은 AI 시대의 풍요를 상징한다.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은 83조 338억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 약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도 추진한다.

그러나 반도체 기업의 호황이 모든 산업에 반가운 소식인 것은 아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

램 수요가 급증하면서 범용 메모리 공급까지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PC와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러한 원가 부담은 소비자 가격에도 나타나고 있다. 애플은 지난 6월 메모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맥북과 아이패드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했으며, 99만원이던 보급형 맥북 네오의 국내 출고가가 119만원으로 올랐다.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노트북을 구매하려면 높아진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소비자가 제품의 완성도에 거는 기대도 커진다. 애플의 첫 폴더블 폰 ‘아이폰 듀오’는 329만원에 출시됐지만 일부 제품에서 화면 손상 문제가 발생했다. 애플은 교체 방침을 밝혔으나 정확한 원인은 공

개하지 않았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는 별개 사안이지만,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에 얼마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준다.

물론 신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기업이 거둔 성과를 주주와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AI 산업의 성장도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 발전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고 소비자의 부담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AI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도 메모리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검색에 사용할 노트북을 구매할 때도 높아진 부품 가격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비자의 일상에도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가 모두의 미래라면 그 과실이 어디로 향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9일 (음 9월 1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남과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60년생 재물을 놓고 주변 사람과 다투는 일이 따를 수 있습니다. 72년생 이성운이 좀 불리합니다. 84년생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9년생 재물이 창고에 가득합니다. 61년생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73년생 백 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됩니다. 85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50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가끔씩 다음으로 미루세요. 62년생 새로운 기운을 얻기 위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74년생 상태를 사수하세요. 86년생 내일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51년생 손실이 있으나 정신을 차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63년생 큰 결정은 잠시 미루세요. 75년생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7년생 여행을 계획했다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52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64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6년생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88년생 정신적인 피로 및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53년생 건강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77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89년생 앞에 너무나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54년생 사소한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6년생 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볼 수 있겠습니다. 78년생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90년생 뒷사람을 잘 따라야 합니다.



55년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집중하세요. 67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날입니다. 79년생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91년생 부와 명예가 귀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6년생 사람과의 교제에 구설이 있으면 안됩니다. 68년생 명성과 이익이 있겠습니다. 80년생 일이 쉽게 이루어지니 큰 이익이 있겠습니다. 92년생 능력 있는 뒷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57년생 말을 조심해서 하세요. 69년생 모든 것이 길한 하루입니다. 81년생 욕심을 버리고 그 동안의 일을 정리할 때입니다. 93년생 모든 일을 침착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진행하세요.



58년생 상황이 자연스럽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70년생 끝이 없고 같이 분망치 못합니다. 82년생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94년생 평소 관심 있는 이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됩니다.



59년생 모든 것이 처음으로 날 것입니다. 71년생 밝은 이름을 얻었고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83년생 피하던 일을 이룰 수 있고 바라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95년생 즐거운 하루입니다.



김상회의四季 반려동물이 물건?

집이나 집안에는 식탁 소파 냉장고 텔레비전 책상 의자 같은 물건이 있다. 그 옆에는 꼬리를 흔들며 사람을 반기는 반려견도 있다. 이 두 가지는 생각지도 못한 공통점이 있다. 한해 민법으로 보았을 때 생기는 공통점이다. 식탁 소파 책상과 반려견이 똑같이 물건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즉 법 규정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고 모두 물건일 뿐이다. 그런데 반려견을 물건으로 여기는 집이 있을까? 반려견은 물건이 아니라 가족이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것도 반려견이고, 피곤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까지 달려와서 맞아주는 것도 반려견이다. 마음이 울적한 날에는 반려견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반려견이 아프면 모든 가족이 함께 아파한다. 이런 반려견이 법에서는 물건이다.

현실적인 상황과 법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그 여론은 더 힘을 얻고 있다. 현실과 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독자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판례에서도 반려견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물건이지만 인간과 공감하고 감정이 있는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500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률 개정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피고 시대가 반영해야 한다. 법은 사람들과 사회가 공감하는 상식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졌다면 법도 그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3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